응답의 근본

(창세기 4:3-5)

말씀 제목: 응답의 근본
말씀 구절: 창 4:3-5

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들어가는 말씀]
오늘 데이빗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합동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데이빗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본문 성경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다.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제목은 응답의 근본이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인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포인트이다. 오늘 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는가를 알면 평생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 이미 메시지를 많이 들어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것이 진짜로 발견되기를 바란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 발견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 말씀이 역사를 하신다. 알고 있어도 머리에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은 천지 차이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받아야 한다. 생명도 공기도 다른 모든 물질도 다 받아야 살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조건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다. 공기가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5분 안에 다 죽는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악한 인간들은 이것을 악용한다. 하나님은 약속한 그날이 올 때까지 아무런 말씀 없이 가만히 계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와 예배하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다.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성경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된다. 이 응답이 지속이 되면 우리는 요셉처럼 살 수 있다. 다윗이나 모세 바울과 같이 살 수 있다.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도 있다. 세상에 신경 안 쓰고 세상 정복하고, 날을 수도 있다. 사탄의 모든 역사 진짜로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의 피가 발견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은 거절했다. 이유를 알면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 위해 쓴 책이다. 인간에게는 답이 필요하다. 원죄를 당한 자는 누구든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지옥 가면 안 되니 답을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지옥을 안 간다. 이것이 답이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수많은 문제를 당한다. 문제가 계속 온다. 그것을 해결하는 답이 기도와 예배이다. 믿음, 기도, 예배는 아주 중요하다.
이 기도와 예배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것은 약속의 피이다.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한다.
이 피가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뱀의 머리를 깨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간을 저주에서 건진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문제를 정복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은 자는 인생을 정복하게 되어 있다. 인생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생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여 증인되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다. 이 약속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다. 가인은 곡식을 가져왔다. 이 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다. 만일 가인도 약속의 피를 가지고 왔다면 받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기에 그렇다. 그것이 창 3:21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다고 했다. 처음 약속이 깨져버렸다.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인데, 그 약속이 깨졌다. 약속이 없으면 인간은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 나무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사탄은 절대로 인간을 손대지 못한다. 약속을 깬 것이다. 사람이 깬 것이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즉시로 사탄에게 100% 당한다. 아무리 노력, 힘쓰고, 애써도 절대로 사탄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그것이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이 언약의 대가이고, 전문가였다. 이 가죽옷이 무슨 말이냐니까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가죽을 옷으로 입혀 주었다는 것이다. 그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의 피 제사를 알려주셨다. 네가 이 제사를 지속을 하면 내가 네게 역사하는 뱀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네가 약속의 피를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 네 인생을 저주에서 건지시겠다. 다른 것 필요 없고, 이 약속의 피 제사를 계속하면 모든 문제를 내가 박살 내겠다. 그러면 너는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인물처럼 세상을 정복한다. 네 문제, 인생을 정복한다. 네 주위에 모든 사람에게 진짜 답을 주라고 아담에게 말한 것이고, 아담은 그 자녀들에게 말을 한 것이다. 아벨은 받았는데, 가인은 안 받은 것이다. 이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구약성경에 쭈욱 이 피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설명하시고, 완성을 하신 것이다. 이 피가 완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피 제사가 필요없다. 완성을 했기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피 제사에 대한 믿음이다. 저주에서 해방이다. 저주는 사탄으로부터 온다. 저주는 원죄에서 온다. 이 피가 원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 피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저주에서 해방한다고 믿는 것이고, 약속의 피를 잡고 사는 것이다. 내 힘이 아니고,. 약속의 피를 잡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응답이 나타난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 너의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하냐? 그 이야기를 창 4장에서 하

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예배드린다. 약속의 피를 잡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세상에 설명하기를 원한다. 그 보혈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 보혈 안에만 해방이 있다. 오늘 이것이 발견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았기에 해방이 되는 언약을 받으면 해방이다. 이 약속의 피가 오직 사탄의 머리를 깬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것이다. 오늘 데이빗 목사님도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단어들을 전달하셨다. 그래서 그 피를 약속의 피라는 것이다. 무엇에 대한 약속의 피인가? 원죄의 저주에서 해방이다. 그 피 안에는 이 약속이 있는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고, 사탄의 권세를 깨는 것이 약속의 피인 것이다. 문제에 잡혀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미 정복을 해버린 것이다. 내가 문제에 잡혀 있어도 울 필요 없고, 오히려 정복을 선포하라. 이 피 아니면 인간은 저주에서 못 나온다.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깨고, 성경과 꼭 같은 인생을 살수 있다. 모세는 위대했지만 인간이었고, 바울도 대단히 존경할 사람이지만 우리가 바울보다 더 크게 살 수 있다. 그 출발과 근본이 약속의 피를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사람을 땅끝까지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피가 이해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이 약속의 피가 인생의 답인 것을 세상에 전한다.

아벨은 이 말을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계속 듣고, 믿음으로 받아드렸다. 가인은 거부했다. 왜냐하면 사탄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가인은 예배를 드려도 일부러 엉뚱한 것, 곡식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부당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대로 하며, 그 약속이 어린양의 피이다.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육신적 행위는 다음이다. 영적으로 답을 내야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도 자식들에게 전달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얼마나 믿는지 아닌지 다 아신다. 우리는 저주를 정복해야 한다. 약속의 피는 문제를 정복하여 승리하고, 정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발견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러면 이 약속의 피가 평생에 답이 되어버린다. 말씀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답이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하신다.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말씀이 되었다면 진짜 인물이 되어버린다. 약속의 피가 복음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다. 전에는 복음 모를 때는 사탄이 있는 줄도 몰랐다. 복음을 깨닫고나니 내 주위에 5-6명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제법 잘 믿는 성도였다. 복음 모르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린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다 하신다. 말씀으로 끝내신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다. 2000년 초반에 제가 한인 타운에 가면 올림픽대로가 있다. 그 길을 크랜셔에서 후버까지 남쪽 북쪽 한 바퀴 돌았다. 거기에 한국 업체들이 많이 있었다. 그곳을 많이 돌았다.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믿는가 싶어서 여론조사 비슷하게 한 것이다. 문항을 20가지 정도에다 세 가지 정도 더 넣었다. 한국 분들은 전부 다 믿는 분들이다 창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가 물었다. 마태복음16:16절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뜻인가 물어보았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했었다. 대략 70여명을 만났었다. 시간이 2-3년 걸렸다. 1주일에 한 번씩 갔었다. 70여명중에 세가지 질문 중에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들이 4-5명 정도 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고 할 때 대부분 말할 때 아벨은 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면 받는다는 사상이었다. 기도를 정성으로 드린다는 사상이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다면 틀린 것이다. 정성을 아무리 드려도 약속의 피가 없으면 안 받으신다. 가인이 곡식을 정성스럽게 씻어서 말려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한국 사람들은 새벽기도를 한다. 새벽기도 가려면 5시에 일어나야 한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복음을 몰라 양의 첫 새끼라는 단어에 속아서 정성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당연히 정성이 있어야지, 정성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연한 것이지,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 하려고 창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깨달아지고, 들어오면 응답이 지속된다. 진짜 인생 정복할 수 있다. 약속의 피가 복음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복음이다. 이 피가 있어야 저주와 운명에서 나온다. 이 피를 언약으로 잡고 살면 문제가 깨져 버린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믿기는 믿는다. 여러분도 다 믿지 않는가! 그런데, 살기는 자기 힘으로 산다. 믿는 것도 사는 것도 약속의 피어야 한다. 믿으니까 구원은 받는다. 이 약속의 피를 놓치고 사니 정복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 맨날 문제에 눌려서 고생하다가 천국 간다. 지옥은 안 간다. 간단하고, 평범하고, 당연한 단어이다. 발견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만일 이게 없이 평생 고생만 하고, 십자가에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모르면 안 된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고, 만날 수 있는 길도 그 흘리신 보혈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약속의 피로 기도하고, 예배하겠는가? 간단하다. 어려운 것은 성경에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3직에 관한 말씀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기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는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예배를 드리라.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리스도의 3직이다.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진짜로 하는 것이다. 로마서 8:1-2 중요한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말로 해방이 되었다.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도 이것을 고백을 하고, 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간단하고, 당연하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언약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 말씀이 내게 발견이 되었다면 말씀에 생명을 걸 것이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시간이 갔으니 여기서 마무리 하겠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약속의 피를 잡아야 한다. 믿고, 끝내면 안 된다. 그러면 천국은 간다. 남은 것은 우리의 삶이다 이 복음, 약속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것은 믿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고, 증인 되어 다른 사람도 살려야 한다. 이것을 잡고, 살아야 한다.

약속의 피를 잡고 살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된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다. 진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되기를 바란다. 조용한 가운데 나와 하나님, 1:1이다. 집에서 한번 해보라 .딱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3직을 고백 해보시라. 지속하면 인생이 달라진다.